

“설레는 첫걸음”... 4년 만의 대면 입학식

어제 도내 초·중·고 ‘마스크 없는 새 학기’ 시작 부모 동행 행사장 북적... 씩씩한 학교생활 응원 도교육청 3~4월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총력전

“아이와 함께 학교에 오니 좋아요. 앞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2일 제주도 이도초등학교. 오전 10시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박정현(이도2동)씨는 첫 등교하는 아이를 보며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이날 2023학년도 개학식과 신입생 입학식이 제주지역 대부분의 초·중·고 등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다만 제주동초등학교는 석면 철거공사 등으로 이달 6일 입학식이 개최된다.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은 신입생이 없어 별도의 입학식 행사가 없었다. 가파초 마라분교장, 한림초 비양분교장은 재학생이 없는 탓에 올해도 휴교 상태를 벗어 나지 못했다.

각급 학교 입학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치러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신입생 162명을 새롭게 맞이한 이도초 입학식에도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1학년 학생들이 축

하하기 위한 학부모는 물론 이도원 드오케스트라 단원들과 6학년 학생들이까지 자리해 체육관이 가득 찼다. 학교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에도 첫 입학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아이와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마스크 없는 새 학기 방역 대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교육 활동 회복에 중점을 둔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 관리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자가 진단 앱과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기숙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3~4월 두 달 동안 방역 물품과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인지 당분간 마스크 착용이나 급식실 칸막이를 유지하는 학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스크만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현장학습 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 등 예외가 있어서다.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이도초에서도 손소독, 실내 환기 등과 함께 급식실 칸막이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각종 감염병 대비 기본 생활 수칙을 담은 영상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학 후 2주간인 이달 16일까지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을 벌인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일 입학식을 치른 이도초등학교 신입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국기자

자치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활동

학교 주변 근무 강화·안전 시설물 신속 보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전을 위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근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학기 초기인 3월 한달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저학년 어린이들의 등하교 보행지도 등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청, 주민봉사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교통안전

특별근무를 강화한다. 또 제주 물메초, 서귀 법환초, 서호초등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12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경찰단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모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제주 1월 광공업 생산·출하 줄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두 달 연속 감소

제주지역의 1월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관광객이 소폭 감소한데 건설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 ‘1월 제주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9.6% 감소했다. 2021년 11월(-0.5%) 이후 1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데다 감소폭도 2020년 10월(-11.4%) 이후 가장 컸다.

광공업 출하는 1년 전보다 0.6% 줄었다. 2021년 12월(-4.1%) 이후 13개월만의 감소다. 음로는 21.4% 증가했는데 비금속광물(-18.9%), 종이제품(-27.9%), 전기·가스업(-2.5%)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월 재고는 1년 전보다 38.3% 감소했다. 또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4.5%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문미숙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3일 금요일 음 2월 12일 (4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20%	
10%	성산 20%	
10%	고산 2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맑음	7/13°C	
모레	☀ 맑음	6/15°C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0-4°C, 낮 최고 기온은 11-12°C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C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 해돋이 07:01	☁ 달뜨기 14:28
☁ 해질 18:31	☁ 달지기 04:41

🌧️ 물때	만조 09:27 20:57	간조 02:22 15:58
-------	-------------------	-------------------

☕ 식중독지수 위험

🛡️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행정시·교육지원청 현안 해결 ‘맞손’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근거 조례안 개정 추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손을 잡고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서귀포시 두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오승식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해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역 행정시 간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제주교육지원청에서는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2일 “늘어나는 제주지역 돌봄 수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며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정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 앞서 돌봄, 다문화가정 지원, 비만 예방 등을 의제로 제주시장과의 간담회, 실무 부서별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민의 비만을 해소할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생활습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제주시청, 제주보건소 등과 함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조례 개정 맞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보다 앞서 작년 말 서귀포시청, (재)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등 3개 기관이 함께하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구축·운영 협약을 가졌다. 2023년 중점 추진 교육 의제로 ‘학생 건강’을 채택했고 올 들어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전선희기자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6월황금연휴 클락전세기

제주↔필리핀(클락&마닐라) 3박5일

클락골프 159만원 (54H/4조이상 단독)	클락&마닐라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 95만)	클락항공권 78만원 (한정판매)
---------------------------------	--	--------------------------

06. 02(금) ~ 06.06(화) 출국 22:00-00:30 귀국 02:00-06: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등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님(\$30), 클럽스, 캐디팁(18홀/\$2) ☞전세기의 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체편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